

「한국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전세계 최첨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선진항공우주 기술교류

및 수출진흥 등의 비즈니스 장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에어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한국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3

11월 4일, 부산 BEXCO에서 화려한 개막

| 코리아국제에어쇼 공동운영본부 |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에어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주최하는 「한국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약칭: 코리아국제에어쇼2003)」가 오는 11월 4일(火)부터 9일(日)까지 부산 BEXCO에서 전문관람객의 날(Business Days: 4일~7일)과 일반관람객의 날(Public Days: 8일~9일)로 나뉘어 개최된다.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을, 산업자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공동대회장인 「코리아국제에어쇼2003」은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네번째 행사를 맞는다. 범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되는 「코리아국제에어쇼2003」은 전세계 최첨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선진항공우주 기술교류 및 수출진흥 등의 비즈니스 장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에어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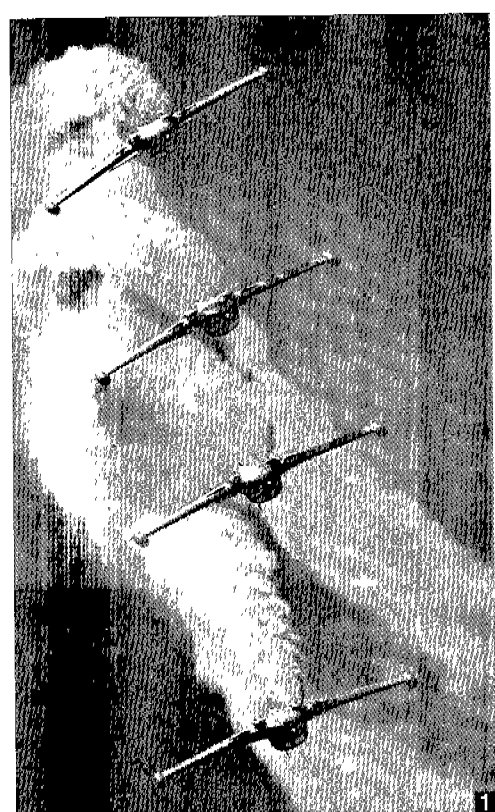
올해는 기존의 주최기관인 KAIA(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KDIA(한국방위산업진흥회) 외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여 KOTRA의 해외 무역관을 Agent로 활용함으로써 행사규모 및 해외 참가업체를 비롯하여 참관업체 바이어들이

종전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규모로는 25개국, 300개 업체에서 실내전시 700부스, 실외 방산장비전시 100여점, 살레 20동의 전시규모와 전문관람객 5만명을 포함하여 약 5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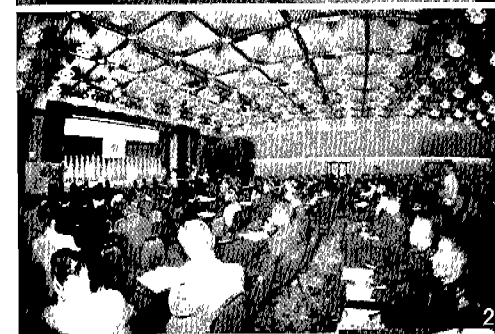
비즈니스 위주의 다양한 행사

KMH(한국형다목적헬리콥터)사업, UAV(무인항공기)사업, 위성발사체 개발, 제주지역항공사 설립,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국내의 항공우주산업 수요가 확장된 가운데 진시참가업체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장관 및 각 군의 총장급 의사결정자를 대거 초청하여 참가업체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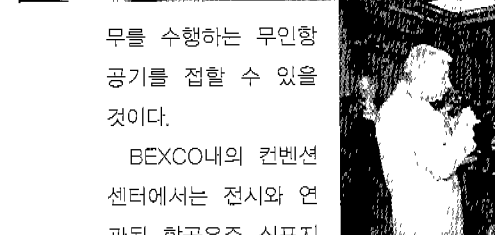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KT-1(기본훈련기), T-50(고등훈련기)과 제주지역항공사 대상항공기(중소형항공기), 각종 헬리콥터 등의 전시 및 시범비행이 있을 예정이며, 실내 전시장에서는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전자장비, 소재부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UAV를 특설 전시장에 전시하여 다양한 일



1. 2003년 11월 8일(토)~9일(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상공에서 KT-1과 T-50,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Black Eagles), 미 공군의 선더버드팀(Thunderbirds), F-15E, 그리고 민간 곡예비행팀 등이 환상적인 곡예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2. 행사기간 동안 전시와 연관된 항공우주 심포지엄, 무기체계 세미나, UAV/KMH 세미나, 제주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정책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3. 전시참가업체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해 해외 장관 및 각 군의 총장급 의사결정자를 대거 초청하여 참가업체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를 수행하는 무인항공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BEXCO내의 컨벤션 센터에서는 전시와 연관된 항공우주 심포지엄, 무기체계 세미나, UAV/KMH 세미나, 제주지역항공사 설립 관련

정책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또한 11월 8일(토), 9일(일) 양일간 주말을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 상공에서는 KT-1과 T-50,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Black Eagles), 미 공군의 선더버드팀(Thunderbirds), F-15E, 그리고 민간 곡예비행팀 등이 환상적인 에어쇼를 선보일 예정으로 부산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적 효과

항공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종합산업으로 정밀기계, 전자, 신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자동차, 조선 등 관련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등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기술축적과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엄격한 생산과정과 품질관리

코리아국제에어쇼 2003					
구분	1996	1998	2001	2003(예상)	
참가국	21	17	16	25	
참가업체	국내	79	41	58	60
	국외	135	114	117	190
	계	214	155	175	250
부스	국내	652	253	242	300
	국외	265	265	382	400
	계	917	518	624	700
살레(동)	국내	12	10	10	5
	국외	14	12	15	15
	계	26	22	25	20
관람객(만명)	55	22	20.5	50	
(전문관람객)	(3)	(2)	(2.5)	(5)	

체계가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수준이 다소 뒤떨어지는 나라들은 자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쇼를 개최한다.

최첨단 항공기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참가업체들 간의 치열한 판매전과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제휴나 합자투자를 위한 협상을 비롯하여 자국제품의 수출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정보, 기술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제품, 서비스의 수출기회를 제공한다"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코리아국제에어쇼2003」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투자재원의 확충과 항공우주산업이 진일보 발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500억원 이상의 산업별 생산효과와 8,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행사관계자의 운영관리비용, 해외 관람객과 바이어의 관광수입 등 150억원 이상으로 부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천계약, 기술협력, MOU 체결 등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준비 박차

공동운영본부는 2002년 2월 싱가포르에어쇼, 7월 판보로에어쇼, 11월 주하이에어쇼, 2003년 3월 IDEX 등 세계 주요 에어쇼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유치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또한 3,000여 여상 참가업체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해외 항공우주 전문잡지에 광고함으로써 「코리아국제에어쇼2003」의 인지도를 높이고 미래고객으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세 차례의 에어쇼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참가자 및 비즈니스 위주의 행사운영과 국제수준의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식 웹사이트(www.koreaairshow.com)를 개설하여 전시참가자와 관심있는 관람객에게 '전시참가 방법', '지난 행사', '행사 동영상', '행사 사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에서 전시참가자가 전시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